

2016.06.10.

# 전환기 충남 경제의 도전

## 목 차

- I. 전환기에 처한 충남 경제
- II. 충남이 직면한 외부환경 변화
- III. 중장기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 IV.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충남연구원 후원표 책임연구원

wonpio@cni.re.kr

# I . 전환기에 처한 충남 경제

- 01. 충남 경제 성장의 성과
- 02. 충남 경제의 특징과 취약점
- 03. 충남 경제 전환기의 의미

# 01 | 전환기에 처한 충남 경제 충남 경제성장의 성과

##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급속한 발전

- 2차 산업 비중: 15.1% (1985)→ 57.0%(2013)
- 연평균 경제성장률 7.0%, 전국 최고 (2000-2013)
- 1인당 GRDP 전국 2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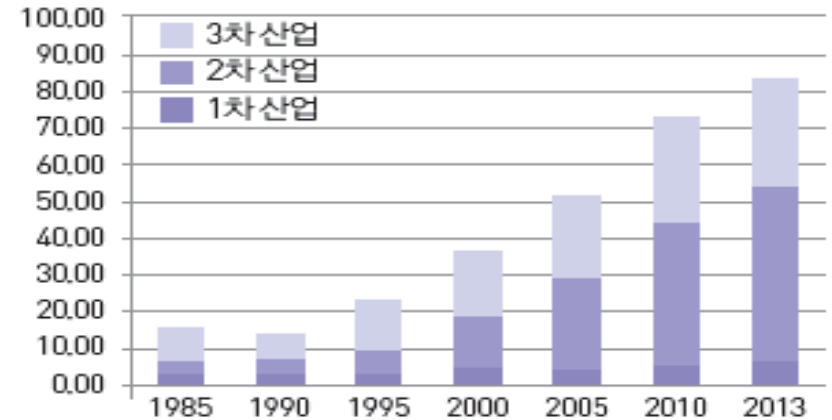
## 충남의 노동시장 여건 비교적 양호

-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지표가 전국지표보다 양호하거나 대등
- 경제활동인구 학력은 다른 도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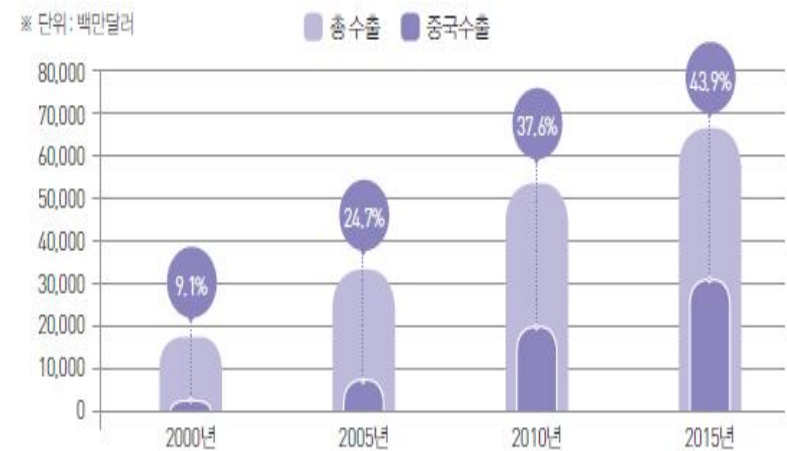
## 대외교역 규모의 급증

- 수출이 170억 달러(2000)에서 650억 달러(2015) 수준으로 급증
- 중국수출 비중 9.1%(2000)에서 43.9%로 급상승

※ 단위: 조 원



※ 단위: 백만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도

## 02 | 전환기에 처한 충남 경제 충남경제의 특징과 취약점

### ■ 대기업 의존 제조업 구조

- 대기업의 충남 제조업 GRDP 비중 약 70%, 전국 2위
- 충남 대기업 종사자수 11만 명, 전체의 14.7%(2013), 전국 평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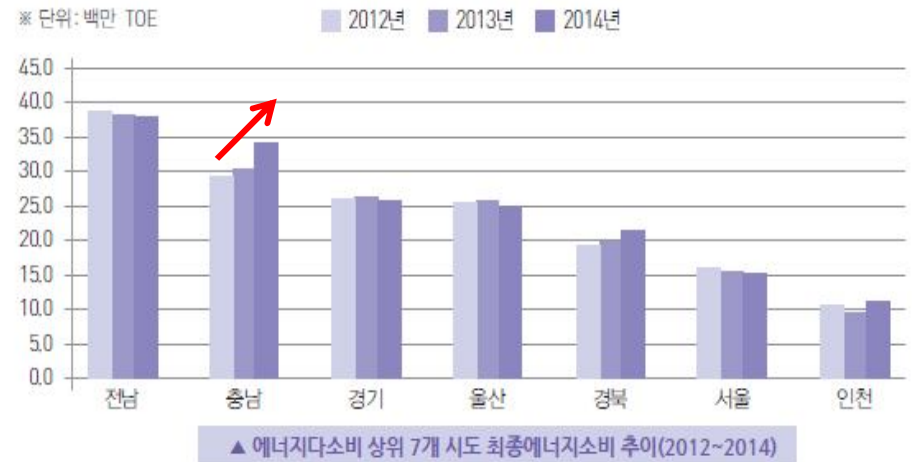


### ■ 수출(특히 중화권) 중심 구조

- GRDP 대비 수출액 비중이 72.4%(2013년)
-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수출 비중이 전체의 2/3

### ■ 에너지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
- 대규모 화력발전소 충남 서해안 지역 집중



※ 자료 :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5)

## 03 | 전환기에 처한 충남 경제 충남경제 전환기의 의미

- 경제가 어렵다고 ‘전환기’ 라는 말을 쓰지 않음
- 전환기란 글로벌 생산분업 체계에서 충남이 담당했던 역할이 바뀌고 있음
  - 대기업은 서울에 본사, 충남에 공장을 두는 입지전략을 구사.
  - 대기업은 충남에 조성한 생산 네트워크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중간재 수출 거점으로 활용.
  - 기업 주도로 수도권, 충남, 중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생산분업체계 형성.
- 이러한 충남경제(제조업)의 위상이 현재 흔들리고 있음
- 충남경제 위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외부환경 변화
  - 수도권 규제 완화    · 중국 경제 구조 변화    ·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

## Ⅱ. 충남이 직면한 외부 환경 변화

- 01. 수도권 규제 완화
- 02. 중국 경제 구조 변화
- 03.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
- 04.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 01 | 충남이 직면한 외부 환경 변화 수도권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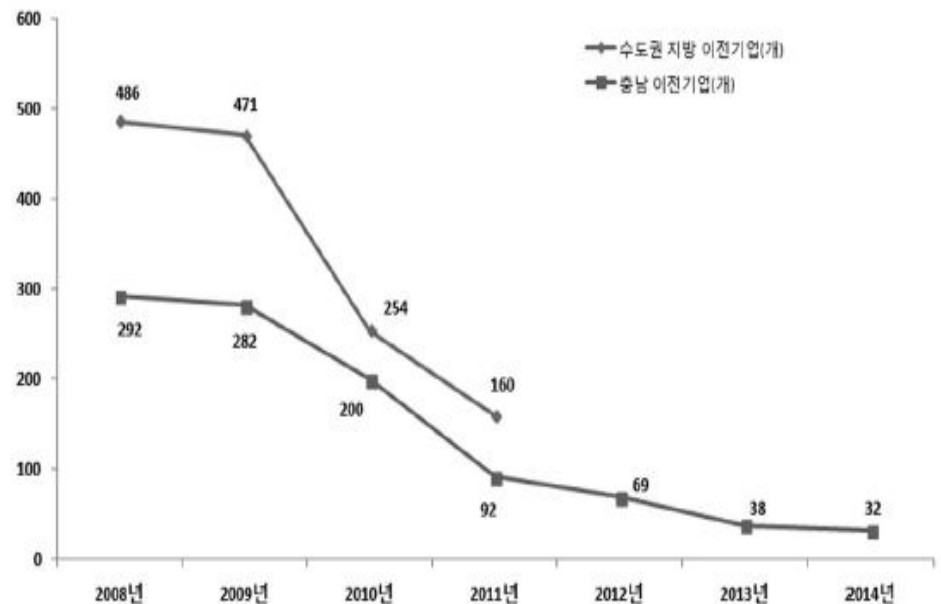
## ■ 이제 충남은 수도권 규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2011년 이후 충남 이전 기업 수 급감
- 일부 기업은 수도권으로 회귀
- 충남 입지 기업 해외 이전 가능성

## ■ 글로벌 분업체제 관점에서 변화를 대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과 가깝고 중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여전
- 기존 산업 기반과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뿌리내리고 있음
- 타 지역보다 유리한 상황

[그림 1] 수도권 이전 기업 현황



출처: 충청남도 기업 유치 현황 내부 자료 및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 (2011년까지만 제공), 충남 경제비전 2030 보고서 재인용(%는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중 충남 이전 기업 비율)

# 02 | 충남이 직면한 외부 환경 변화 중국 경제 구조 변화

## ■ 중국의 “뉴노멀(New Normal)”

- 고도 성장 → 중속 성장
-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제조업 고도화
- 서비스 산업 발전, 내수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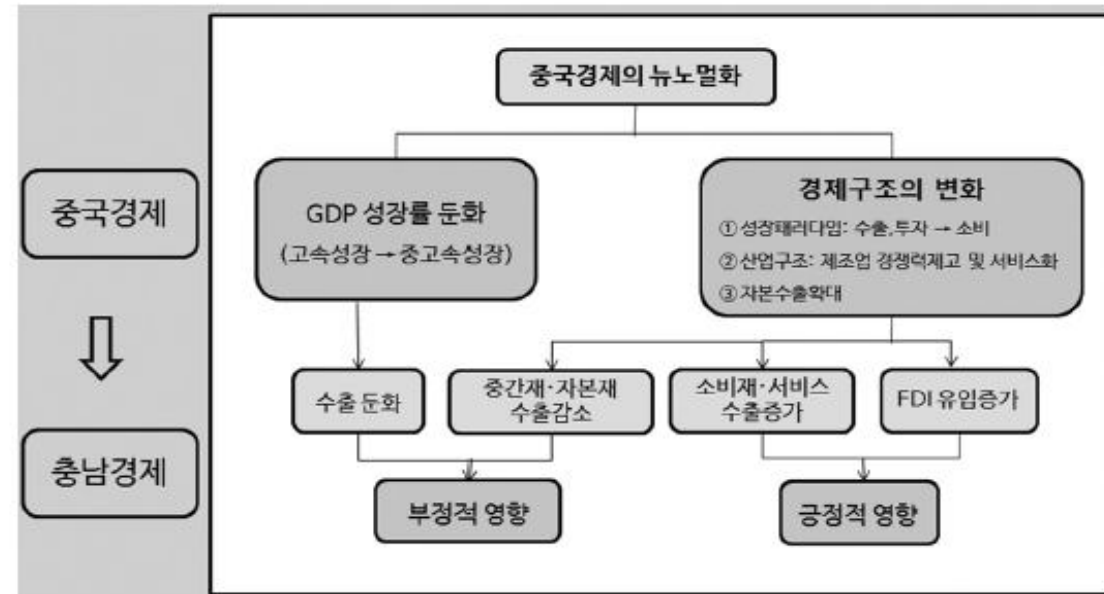
## ■ 뉴노멀은 양날의 칼

- 수출 둔화 및 중간재, 자본재 수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전망
- 충남 경제에 소비재·서비스 수출 증가 및 FDI 유입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 ‘중국제조2025’ 은 충남 주력산업 경쟁 심화

- 충남의 대중국 수출품은 중간재 비중이 72.8%에 달해(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
- ‘제조업2025’ 는 적극적인 중간재 산업 지원 정책을 의미 \* 2012-2014년 사이 충남 디스플레이 생산액 크게 감소

[그림 2] 중국 경제의 뉴노멀화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출처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



# 03 | 충남이 직면한 외부 환경 변화

##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

###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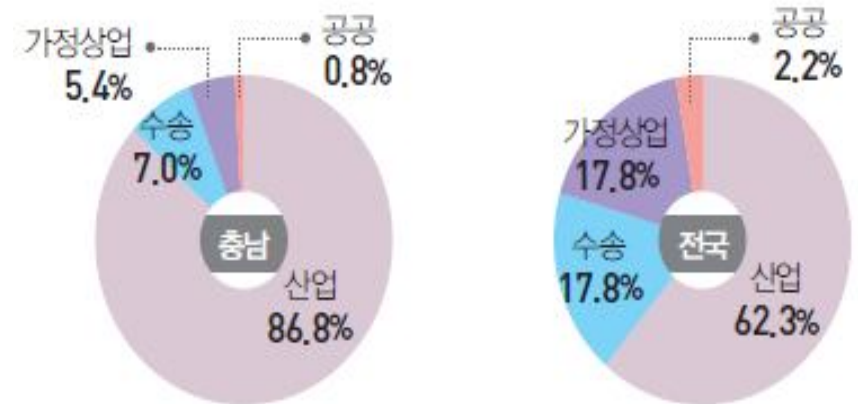
- 전세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국내 25.7%, 국제시장 활용 11.3%) 감축 공표

### ■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충남에 큰 영향

- 충남의 서해안 화력 발전소 밀집 → 에너지 공급량 전국 1위
- 에너지다소비 대규모 제조업체 입지 → 산업소비 86.8%

### ■ 위기는 기회를 잉태하고 있음

-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절감 기술, 친환경기술 요구 거세져 → 도태되는 기업 발생
- 에너지 저소비, 온실가스 저배출 구조로 전환 기회



▲ 부문별 에너지 소비 비중

자료 :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4)

# 04 | 충남이 직면한 외부 환경 변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 ■ 수도권 및 중국 등 신흥국 주요 지역과의 상생과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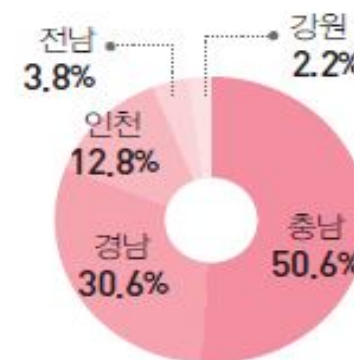
- 충남 서북부지역과 경기남부 통합된 경제권역
- 중국 환발해만, 메콩강 경제권과의 교류와 협력
- 중국과 긴밀한 교류 협력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

## ■ 충남 주력 산업의 고기술, 고부가가치화

- 중국 내수시장 겨냥 소비재 산업 육성 필요
- 산업별 온실가스규제 대응전략 모색

## ■ 충남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 새로운 기술과 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이차전지 등
- 현 전력생산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
  - 단기: “석탄화력 멈춤 신호가 필요” (여형범, 본서)
  - 장기: 화석연료 대체 태양광, 수소 등



▲ 발전용 석탄제품(유연탄) 소비 비중

자료 :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4)

### Ⅲ. 중장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01. 지역 경제 다양성 확대
- 02. 지역혁신 역량 및 협력 강화
- 03.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 01

중장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지역경제 다양성 확대

■ 특정 기업·업종에 대한 특화는 경로의존성과 고착 때문에 지역경제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음

■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 관광, 건강보건 산업 등
- 산업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융·복합과 시너지 창출 촉진

■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사회적 경제 육성

- 서민경제의 뿌리가 되는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 산업의 다양성뿐 아니라, 기업의 다양성, 기술의 다양성, 일자리의 다양성도 필요

- 다양한 기업 의 공존: 산업 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 창업 기업 간
- 상이한 산업간 상호 상생 공존
- 다양한 수준의 기술: 첨단산업에서 적정기술까지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청년, 여성, 노인, 은퇴자 등 자기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 02 | 중장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지역 혁신역량 및 협력 강화



### ■ 수직 피라미드 계층 산업 구조의 경쟁력은 갈수록 취약

-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층형 산업 생태계는 선진국 모방 추격 단계에서는 효과적
- 창조와 혁신이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움

### ■ 충남은 물리적 집적은 있으나 연계가 취약

- 산업과 기업의 집적 \* 충남은 이미 여건 구비
- 연구개발 역량, 다양한 지식기반 서비스, 기술과 숙련을 갖춘 풍부한 인력
- 지역 내 경제주체들을 연결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 ■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산-학-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관계 구축 → 지역혁신체제로 나아가야
- 기업지원 기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03 | 중장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 ■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춰야

- 충남의 도시와 농촌의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
- 산업 유치, 기업 혁신, 지역소득 외부유출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부정적 영향
- 장기적 종합적 계획아래 꾸준히 실천해야 할 과제 →어렵지만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 ■ 도시와 농산어촌을 두루 갖춘 충남은 새로운 거주 환경, 새로운 생활 방식의 잠재력 높아

- 성공적 시범사례 만들어 확산
- 농촌형 전원마을 조성, 도시형 골목길 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 내포신도시, 안면도 개발과 같은 단위로 모범사례 확장

## IV.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 01. 충남 지정학에 대한 성찰
- 02. 우리나라와 충남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야
- 03. 충남 행복한 삶터 만들기 모색

# 01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 충남지정학에 대한 성찰

### ■ 충남의 지정학적 잠재력

- 충남은 대륙과 해양, 내륙과 해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업과 공업이 만나 어우러지는 지역
- 이러한 ‘어중간한’ 지역은 상이한 흐름이 만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

### ■ ‘어중간한’ 지역이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는 지역으로 나갈 수 있나?

- 백제는 외래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재창조하여 다른 나라에 전수
- 당시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자신의 문화역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

### ■ 충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가야만 진정한 동아시아 주역으로 발돋움

- 지난 20년 간 충남의 성장이 입지적 우위라는 하드웨어에 기반한 성장이었음
- 미래에는 ‘이제는 소프트파워다!’



02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 우리나라와 충남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야

## ■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성공 역사 ‘한류’

-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에 프리미엄 형성,      · 소비재 경공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

## ■ ‘한류’ 가 충남의 산업 다변화에 기회의 창 제공

- 이식된 수출제조업에서 지역의 농산물 가공, 자연, 역사문화자원 등 관광으로 산업 다변화
-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

## ■ 충남 경제성장의 성과는 미래 충남의 밑불

- 전기전자, 기계, 금속, 화학 등 고르게 발달, 든든한 농업 비중
- 충남 제조업 본사 비중 급증(홍성호, 본서)

사업체 유형		지역	2006	2010	2014
제조업	본사	전국	19.7	18.6	17.6
		충남	20.4	24.9	25.7
	단독사업체	전국	60.1	61.2	62.3
		충남	40.9	41.6	45.0
	공장	전국	20.2	20.2	20.1
		충남	38.7	33.4	29.4

# 03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 충남 행복한 삶터 만들기 모색



### ■ 흔히 산업화는 도시화를 수반하고 이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과 동일시

· ” 도시화는 인간의 삶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도시의 승리〉, 에드워드 글레이저)

### ■ 충남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성되는 정주체계가 장기간 유지될 전망

· 충남 인구 증가 둔화(2040년 245만 명), · 저출산 고령화 심화

### ■ 충남 행복한 삶터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 대도시일수록 행복도가 떨어지며, 도 광역지자체가 만족도 높아(동아일보, 2015.12.11.)

· 충남 읍 지역이 면 지역이나 동 지역보다 주관적 행복감, 사회적 행복감 높아(한귀영, 2015)

근자열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우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감사합니다.